

# 과학, 실재 그리고 성경

작년 3월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는 선정적인 표지로 눈길을 끌었다. 안경을 쓴 한 지식인이 화형을 당하는 그림이었다. “이 단”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그림 속의 주인공은 뉴욕대학의 저명한 원로 철학교수 토마스 네이글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왜 화형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논란의 발단은 그가 2012년 가을에 출판한 『마음과 우주』라는 저서였다. 이 책의 부제는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유물론적 신다윈주의 자연관이 거의 확실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지식사회의 성배인 유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과 우주』에 대한 공격적 서평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급기야 《가디언》지가 선정한 “2012년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된 과학서적 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유물론이 오늘날 지식사회에서 얼마나 첨예한 이슈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음과 우주』가 출간된 지 한 달 후 영미권의 대표적인 유물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연주의를 진전시키며(Moving Naturalism Forward),”를 기치로 내건 이날 회동은 사실 이 책을 염두에 둔 모임은 아니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신』을 출간한 이후 가열된 소위 새로운 무신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이었다. 새로운 무신론의 대표적인 특징은 과학이

다. 이날 모임의 핵심 참석자들도 과학자나 과학적 철학자였다. 칼텍의 물리학자 셉 캐럴이 조직한 이날 모임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진화생물학자 도킨스를 위시해 물리학의 스티븐 와인버그, 인지철학의 대표적 인물인 대니얼 데닛 등 거물급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 걸친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방영되었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의식, 자유의지, 윤리, 의미, 목적, 결정론 등 하나같이 삶의 핵심어였다. 특기할 점은 이 모든 논의들이 과학적 논의를 등에 업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실재가 유물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 시대 대표적 유물론자들이 보여준 유물론의 향연이었다.

『마음과 우주』에서 네이글이 비판한 유물론의 핵심에는 모든 현상이 물질로 환원된다는 환원주의가 자리한다. 유물론에 따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실재는 오직 물질뿐이다. 물질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에 불과하다. 당연히 초월적인 영혼, 신의 존재는 부정된다. 물질 이상의 것이라 여겨져 왔던 생명과 정신도 본질적으로 물질이며, 물질로 환원해 설명가능하다고 본다. 다윈 이전에는 생명과 정신의 존재를 물질로 설명하기 어려워 초월적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선택이라는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유물론자들은 주장한다. 생명과 마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물질로 환원해 설명하려는 유물론 프로젝트가 신다윈주의로 완성된 것이다.



**박희주** 현재 명지대학교 병목기초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호주 멜번대에서 과학사를 전공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다. 미국 진화론 논쟁사에 대한 연구로 한국과학사학회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역서로는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논쟁, 최근 50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있다.

나이글은 유물론을 반대하지만 유신론자는 아니다. 또한 진화론이 전적으로 틀렸거나 무용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생명의 탄생에서 의식의 탄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연선택으로 설명하는 신다윈주의의 과도함이 문제이다. 나이글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나이글은 유물론도 유신론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다. 그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목적론이다. 자연에는 생래적으로 생명과 의식을 탄생시키는 목적론적 특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유물론적 신다윈주의 자연관에 대한 그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관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나이글의 시도가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무엇이 무신론자 나이글로 하여금 현 지식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만든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할 노년에 불을 끌어안게 만든 것일까? 두 가지만 들기로 하자.

먼저 의식의 불가해성을 들 수 있다. 신다윈주의가 정신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면 현대의 신경과학은 정신의 작동에 대해 설명한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신경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다. 그렇다면 신경회로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벽하게 밝혀내면 의식의 신비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나이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과 주체가 갖는 주관적 경험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글은 1974년 “박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기념비적 논문에서 이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박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나이글이 던지는 질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쥐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다. 박쥐에게서 어떻게 초음파가 발사되고 수신되는지, 수신된 정보가 박쥐



뇌의 신경회로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신경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밝혀내었다고 하자. 우리는 과연 박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저 캄캄한 동굴이지만 박쥐는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했을 것이다. 과연 그 경험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내가 박쥐가 되지 않는 한 그 경험은 공유 불가능하다고 네이글은 지적한다. 느낌, 주관적 체험은 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며 객관화되거나 공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글은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체험은 신경과학에 의해 뇌의 정보처리과정이 완벽하게 밝혀진다 할지라도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의식은 유물론적 다원주의나 신경과학이 전제하는 자연관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적 선택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 인간의 마음이 신경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라면 다시 말해 신경회로망의 전기화학적 작동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면 자유의지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우리의 윤리적 선택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프로그램된 로봇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윤리적 선택이 환상이 된 인간에게도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살인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자유의지의 증발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사회시스템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는 정치철학자이기도 한 네이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데닛 같은 하드코어 유물론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타협책을 제시한다. 대중에게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강조하면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을 테고 따라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대중이 느끼는 방식으로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하자는 것이다. 실제 과학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꿈수에 불과하다.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자유의지의 존재

를 인정할 경우 법정에서 발생할 자기모순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예컨대 법정에서 살인범이 유물론이 말하는 과학적 진실을 인용해 자신의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은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유물론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죄값을 물을 수 없고, 죄값을 묻기 위해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유물론자는 자신이 믿는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예에서 보듯 신경과학이 전제하는 유물론적 자연관은 사회체제의 존립과 심각한 부조화를 이룬다. 네이글은 이러한 부조화가 유물론적 자연관에 존재하는 중대한 결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이상 실재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유물론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세계관은 실재를 규정한다. 유물론적 세계관이 인정하는 실재는 물질 뿐이다. 신과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과 정신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물질이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실재는 이와 다르다. 창조주가 존재하며 물질은 신의 창조물일 따름이다. 생명과 의식을 가진 인간도 피조물이다. 궁극적 실재는 신이며 물질, 생명, 정신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유물론자들의 믿음과 달리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신의 창조행위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 물질세계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물리적 세계는 근본적 변화의 도상에 있는 잠정적인 존재일 따름이다. 실재를 궁극적이고 변치 않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실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큰 틀에서 물질세계는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의 유물론자에게 있어 물리적 실재는 모든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과학이다. 이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놀라운 성취를 강조하며, 과학을 통해 실

재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은 과학에 대해서도 유물론자들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 필자가 가장 깊이 느낀 점은 과학은 잠정적이며 변한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과학의 내용은 늘 변해왔으며 심지어 그 목적과 방법도 변해왔다. 18-19세기 유럽에서 그토록 확신했던 뉴턴의 역학도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으로 대체되지 않았던가.

과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이 작동하는 근본적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고대 그리스 과학의 핵심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자연을 목적론적이고 유기체적으로 해석했다. 현대과학은 기계론적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생명에 빚대어 자연을 이해했다면 현대과학은 기계적 메커니즘에 빚대어 자연을 이해한다. 둘 다 자신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해방식이다. 만일 감각기관과 인지기관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할까?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은 역사를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변할 뿐만 아니라 탐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현대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기반을 두며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현상만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현대과학이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침묵이다. 관찰과 측정 가능한 현상에만 방법론적으로 탐구대상을 제한하는 이러한 현대과학의 특성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신의 부재가 현대과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과학의 이러한 특성을 심각하게 곱해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에서 신이 사라진 것은 신이 과학의 탐구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이지 과학이 신의 부재를 증명했

기 때문이 아니다. 신의 부재는 유물론이 취한 전제일 따름이다.

기독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유물론자들의 지나친 과학주의에 반발하여 조건반사적으로 부정할 일은 아니다. 앞서 지적한 과학의 특성과 한계를 잘 인식한다면 오히려 과학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된다.

첫째,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해 문명을 이룰 수 있다. 과학기술은 소위 문화명령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다. 어떤 문명을 건설할지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고, 문화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다. 자연을 맡은 청지기로서 인간은 자연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자연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의 책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보살피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색을 통해 신학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자연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한 존재라면 신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을 품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때 신학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과 물질과 정신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느껴질수록, 과학을 앞세운 유물론적 담론이 거세게 밀려올수록 신학은 과학과의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